

## 代 이어 온 재배법으로 '명차' 세계화



제다 명인을 찾아서

### 신광수 순천 명도다원 대표

농림부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가공법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식품 명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고유의 맛과 제조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나 20년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명인' 호칭이 주어진다. 농림부가 지정한 '전통식품 명인' 중 차 명인은 모두 3명. 1999년 순천 명도다원의 신광수 대표(제 18호 야생작설차와 하동 명인다원의 박수근 대표(제16호 수제녹차)가 지정된데 이어 올해 2월 하동 쌍계제다김동근 대표(제23호 우전차)가 명인에 선정됐다. 3회에 걸쳐 제다명인을 차례로 만나 본다.



야생 자생차 제다 명인인 신광수씨가 조계산 백련봉 자락에 조성한 차밭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순천 조계산 선암사 초입에서 명도다원을 운영하는 신광수(56)씨는 지난 1999년 농림부가 지정한 야생 자생차 제다 명인이다. 신씨의 명인지정은 선암사 스님들이 마시던 '불가(佛家)의 차(茶)'가 정부로부터 공식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신씨가 어려서부터 선암사에 거주하면서 선전 응곡 스님(前 선암사 주지)으로부터 차 제배

와 제다법을 전수받았고, 40년 가까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품에는 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마다 차를 마셔 살아났고, 평생 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몸이 약했던 신씨는 어머니가 미나리, 참바귀 등을 우린 약을 너무 써서 먹지 못했다. 그러나 부친이 주신 차는 입에

맛있다. 학교를 마치고, 살기 위해 선암사로 들어갔다. 응곡 스님과 함께 선암사 야생차밭을 복원하며 차와 함께 살았다. 차는 신씨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 "차의 진향(眞香)과 오미(五味)는 깊은 땅속의 순수한 기를 머금은 차맛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차의 성질에 따라 제다한 차야말로 진정한 생명이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 300~700년 야생차밭과 국내 최대 죽로차밭을 운영하고 있는 신씨는 "차나무는 평생 10차 깊이까지 내려가는 직근성을 잃지 않았을 때 좋은 차맛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류호텔과 백화점에서 신씨의 차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제 신씨는 한국 전통차의 세계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 다즐링, 스리랑카 우바, 중국 기문을 세계 3대 홍차로 꼽듯, 한국 고유의 전통차를 세계 명차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씨는 조계산 백련봉 자락에 10만평 규모의 차밭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의 명차들이 해발 1000m 지대에서 생산되는 것을 참작해 고산지대에 차밭을 일궈냈다. 상사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신씨의 차밭은 차나무가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신씨의 차와 함께 야생차밭도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 농림부 지정 야생 자생차 제다 명인

### 일본에 수출하며 품질 인정받아

### 고산지대 조성한 차밭 관광명소로

좋은 차맛에 명인의 미각, 후각, 촉각으로 제조된 차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차'가 된다. 그래서 신씨는 자신이 제다한 제품은 '명인 신광수 차'라는 상표를 붙인다. 이름을 붙일 만큼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씨의 차는 국내를 넘어 외국에까지 명성이 높다.

지난 9월 11일, 세계 최고급 차만을 취급하는 일본 삼다회 대표 오가와 히데히코 일행이 신씨 차밭을 찾았다. 야생차밭과 제다공장, 완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는 2009년까지 100억원 상당의 신씨 차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일본에서도 일

신씨는 선암사에서 대대로 이어온 차나무 제배법을 따르고 있다. 이곳에는 비료, 농약은 물론 정부가

친환경 농가에 제공하는 석회까지 철저히 반입을 금하고 있다. 신씨가 추진하는 '우리차 세계화'는 대를 이어 진행되고 있다. 대학에서 식품학을 전공한 아들(25, 화천은 차의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해 내년에 상품화할 예정이다). 딸들은 세계화의 관련 외국어를 전공했고 '차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남도문화의 귀결은 차입니다. 앞으로 순천은 세계 명차 산지로 각광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조계산을 중심으로 야생차와 선암사에서 내려온 제다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글·사친/순천=이준영 기자



## 인류 문화속의 茶

### 9. 신비의 음료

#### ⑧ 커피왕국

커피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령의 식민지로 제한되었던 생산지에서조차 열매의 반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프랑스령 기아나 총독의 아내는 꽃다발 속에 커피콩을 숨겨 정부(情夫)였던 브라질 관리 팔레타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커피콩이 브라질 땅에 심어져 수 억 그루의 커피나무로 자라게 됐으며, 브라질은 커피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브라질의 주 생산품이 처음부터 커피였던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는 사탕수수 재배가 경제의 주축을 이뤘다. 사탕수수 농장은 대단위 농장 형태로 부를 가져 왔다. 사회적인 구조는 재력을

피공을 짜는 등 편법을 쓰기도 한다. 재배지 면적으로 볼 때 커피 수확량은 성공적이었으나, 어느 날 수확을 앞둔 커피 열매를 새들이 먹어 치우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커피 열매를 먹은 새들은 더욱 극성을 부렸고, 원주민들은 불길한 예감으로 더욱 커피를 외면했다.

10여년이 흐른 뒤 사람들의 옷과 손을 통해 옮겨진 흙씨는 커피나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을 제 공하여 커피농장을 황폐화 시켰다. 이를 계기로 대체 품목인 차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홍차의 대명사인 실론티가 탄생했다.

브라질의 커피 산업은 계속 팽창됐고 과학적으로 재배했다. '크레올' '부르봉' '보부카루' '엘로우' '자바' '마라고 지페'라는 6종의 커피가 생산되었다. 모판에서 1~2피

### 땅·기후·노동 조건 갖춘 브라질은 생산량 1위 대량 생산으로 인한 양적증가는 품질 저하 초래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농장주와 농장의 책임자, 자유민, 흑인 노예로 구성됐다. 노동력의 대부분은 노예에 의존된 거대한 노예사회였다.



커피콩을 수확하는 브라질의 노예들(F.미란다, 1750-1816).

이러한 사회구조는 커피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열대성기후와 화산성 토양을 가진 상파울루 고원은 양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였다. 화산작용으로 현무암의 분열에 의해 생성된 땅, 흐릿한 날씨와 충분한 습도, 노동 조건은 브라질을 커피 생산국 1위에 올려놓았다. 브라질의 커피 산업은 이

우에 있던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 영향을 주어 커피 재배를 확산 시켰으나 주변국에서 생산된 량은 극히 미미했다.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던 실론섬은 1802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커피를 생산했다. 그러나 불교인이 대부분인 실론섬 사람들은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슬람의 음료인 커피재배는 실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거부감을 주었으며, 커피콩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위해 커

트까지 자란 묘목을 12피트 간격으로 옮겨 심었다. 묘목은 성장하여 작고 하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점점 초록색에서 चेरी열매가 되면 수확하여 저장해 두는데 건조법과 습도가 있다. 건조법은 열매를 햇빛에 말려 나뭇가지에서 따내서 껍질을 제거한다. 습식법은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에 넣고 껍질을 제거한 후 생커피를 세척하여 발효 탱크에 저장해 둔다. 2-3주의 발효과정이 지나면 햇빛에 말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두가 우리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운 상태가 되어 완제품으로 커피시장에 판매가 된다.

20세기 초 브라질산 커피는 전 세계의 90% 이상을 생산했다. 그러나 커피의 과잉생산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커피를 처분할 시장 찾아가 했다. 중국과 일본 등은 커피 수출을 원했지만 실패했다. 대량 생산으로 인한 양적 증가는 품질 저하를 가져왔으며, 병충해로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슬람의 음료인 커피재배는 실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거부감을 주었으며, 커피콩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위해 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 중장기적으로 자생차 육성·보급

### 정읍시, 세미나 개최 및 벽련암 차밭 복원

2003년부터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녹차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정읍시가 자생차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보급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정읍자생차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는 2015년까지 대규모 자생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차밭을 통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읍시는 지난해까지 112농가 135ha의 차밭을 조성했고, 올해 안으로 약 300ha의 녹차 단지가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내장상 민박촌 4개 마을에 녹차 울타리를 조성하고 내장산 벽련암에 1만여 평에 이르는 차밭을 복원하는 등 정읍 자생차를 이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벽련암 차밭은 일반인에 분양에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예정이

며, 제다 및 다도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편,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9월 22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제2회 정읍 자생차 산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정읍 자생차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 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최석환씨(월간 차의세계 발행인)가 '천원차(川原茶)의 재발견'을, 한상섭 교수(전북대 산림공학과)가 '정읍 자생차의 발전 방향'을, 정인오 교수(한서대 차학전공)가 '한국 덕음차의 품평기준과 고급차 가공기술'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이어 자생차 시음회 등도 펼쳐진다. (063)536-7684

**보이차 전문점**

진년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 등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범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범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 낙산사 10분소요 · 후휴양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범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수제화로 제작

## 滿 行 靴 化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플크 중앙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지압형권 실리콘 폼, 침수복원단, 개인별표시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중 은 점**

만행 표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황금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정우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마음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민생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 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창

광주광역시 동구 윤리동 96번지  
전화 062)226-4445  
팩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